선교사역 MISSION

우리의 국외 사역

큰은혜교회	히라가타 순복음교회
최정선 목사 (한국)	박경복 목사 (일본)
아가페교회	MKCC 선교센터
윤상현 선교사 (필리핀)	이일환/이진숙 선교사 (미얀마)

Compassion 컴패션과 함께 양육하는 16명의 아이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BRIANA	ESTEFANI	CAMILA	EMELY
GENESIS	NANCY	JENNSY	GAEL
JOSUE	ROBERTO	LIA	OSCAR
LUIS	YEFERSON	ORIANA	VALENTINA

우리의 국내 사역

홈리스 아웃리치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는 돌봄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산호세 St. 제임스 파크

지교회 (솔라노 큰빛은혜교회, 순복음 파소 교회)

솔라노 지역과 파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배드리는 두 지교회

솔라노 | 주일 예배: 오후 1시 장소: 78 Peabody Rd, Vacaville, CA 95687

파소 | 주일 예배: 오전 10시 반 장소: 3402 Oak St, Paso Robles, CA 93446

캠퍼스 사역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깨어있는 시대정신과
영성을 통한 캠퍼스 복음화 사역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De Anza college

어라이즈 워십 & 악기클래스

베이지역에 찬양의 향기가 울려 퍼지며,
악기레슨을 통해 1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교육관

교회비전 VISION

MISSION STATEMENT

W.O.R.L.D. VISION

Worshiping Church
예배하는 교회

Oikos Church
소그룹 교회

Reaching Out Church
돕는 교회

Life Giving Church
살리는 교회

Discipling Church
제자삼는 교회



큰빛은혜교회를
검색해보세요

예배안내 WORSHIP SERVICE

주 일 1부	오전 9시	본 당
주 일 2부	오전 10시 30분	본 당
주 일 학 교	오전 10시 30분	교 육 관
금 요	오후 7시 30분	본 당
새 벽	오전 6시 (월-금)	교육관 / YouTube Live

Bay Area Full Gospel Church

큰빛은혜교회

Be still, and know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웹 바로가기

Senior Pastor

담 임 목 사 이기봉

Asistant Pastor

교 육 전도사 김태아 임성호 김승연 Grace Kim

지교회 전도사 이중록 Sam Kim

큰빛은혜교회

415 317 4631

www.bafgchurch.org

bafgchurch@gmail.com

125 E Arques Ave, Sunnyvale, CA

예배순서 WORSHIP

제 5호 42권 Vol. 5 No.42

10.25.2026

여는 기도 Opening Prayer		김지훈 집사 Jihoon Kim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같이 Together
대표 기도 Representative Prayer		장승현 성도 Seunghyun Jang
말 씀 Sermon	침상을 걷고, 절망을 털다 사도행전 9장 32~43절	담임 목사 Senior Pastor
합심 기도 United Prayer		다같이 Together
봉헌 및 찬양 Offering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다같이 Together
광 고 Announcements		담임목사 Serior Pastor
* 찬 양 Blessing Song	삼중 축복	다같이 Together
축 도 Benediction		담임 목사 Senior Pastor

* 자리에서 일어나서
* Please stand

대표기도 REPRESENTATIVE PRAYER

기도 순서

	10/25	11/1	11/8	11/15	11/22
1부	김보라	-	김태아	임성호	김지훈
2부	장승현	김종길	박소려	김영미	김아론

교회소식 ANNOUNCEMENTS

1. 식탁 교제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당에서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2. 담임 목사 인도네시아 사역 동정
일정: 10월 26일(월) ~ 11월 14일(토)
장소: 인도네시아 반둥 반석교회
담임목사님의 인도네시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솔라노 큰빛은혜교회 추계 수련회
일정: 11월 14일(토) ~ 15일(주일)
장소: 순복음 파소교회
오고 가는 길의 안전과 두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은혜를 나누는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9~10월 성경 읽기 프로젝트
범위: 대선지서~소선지서 (에스겔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성경 읽기 표에 체크하시면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5. 가정 예배지
홈페이지에 가정예배지가 업데이트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생일

18일 박세례 사 모
20일 우빛나래 자매

이번주 새벽기도회

월	화	수	목	금
열왕기상 15:9-24	열왕기상 15:25-34	열왕기상 16:1-14	열왕기상 16:15-20	열왕기상 16:21-28
Grace Kim	이중록	Sam Kim	임성호	김태아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10.25.2026

카타르시스(Catharsis)

'카타르시스(Catharsis)'는 흔히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강렬한 쾌감'으로 표현됩니다. 극적인 반전 영화를 보거나, 억압된 감정을 한 번에 터뜨릴 때 우리는 이 단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정립한 카타르시스의 본질은 단순한 감정의 배출(Purgation)을 넘어, 마음을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는 정화(Purification)와 삶의 회복에 있습니다.

<마음의 고인 물을 흘려보내는 정화의 힘>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의 찌꺼기를 마음에 쌓아둡니다. 슬픔, 불안,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들은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마음의 방 한구석에서 곪아 가기 마련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류는 이 무거운 감정들을 '더 큰 슬픔과 두려움'을 직시함으로써 치유해 왔습니다. 비극적 영화를 보며 눈물을 펑펑 흘린 후, 혹은 슬픈 음악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진 후에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이한 경험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타르시스의 기적입니다.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가치>

• **감정의 정직한 마주함:**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치관이나 사회적 체면 때문에 슬픔과 두려움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카타르시스는 안전한 무대(예술, 문학, 스포츠 등)를 통해 우리가 외면했던 감정들을 정직하게 마주할 기회를 줍니다. 내 안의 어둠을 똑바로 응시할 때, 비로소 치유는 시작됩니다.

• **삶의 균형을 되찾는 회복력:** 카타르시스는 감정의 과잉을 덜어내고, 메마른 감정에는 온기를 불어넣는 밸런서(Balancer) 역할을 합니다. 마음속 고인 물을 눈물이나 소름 돋는 전율로 흘려보내고 나면, 그 비워진 자리에 다시 삶을 살아갈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 **보편적 인간성을 향한 공감:** 극 속의 인물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보며 흘리는 눈물은 고결합니다. 그 눈물은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취약한 존재'라는 깊은 보편적 공감대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정화된 마음은 타인을 향한 너그러운 시선으로 확장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늘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과 이성적인 태도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울지 못하는 마음은 언젠가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카타르시스는 우리에게 "마음껏 슬퍼해도 좋고, 두려워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다정한 위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크리스천의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다면, 감정의 댐을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 안에서 가슴을 울리는 간증 속에 자신을 흠뻑 던져 가슴 벅찬 전율을, 혹은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내 안의 감정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카타르시스의 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전보다 더 맑고 단단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